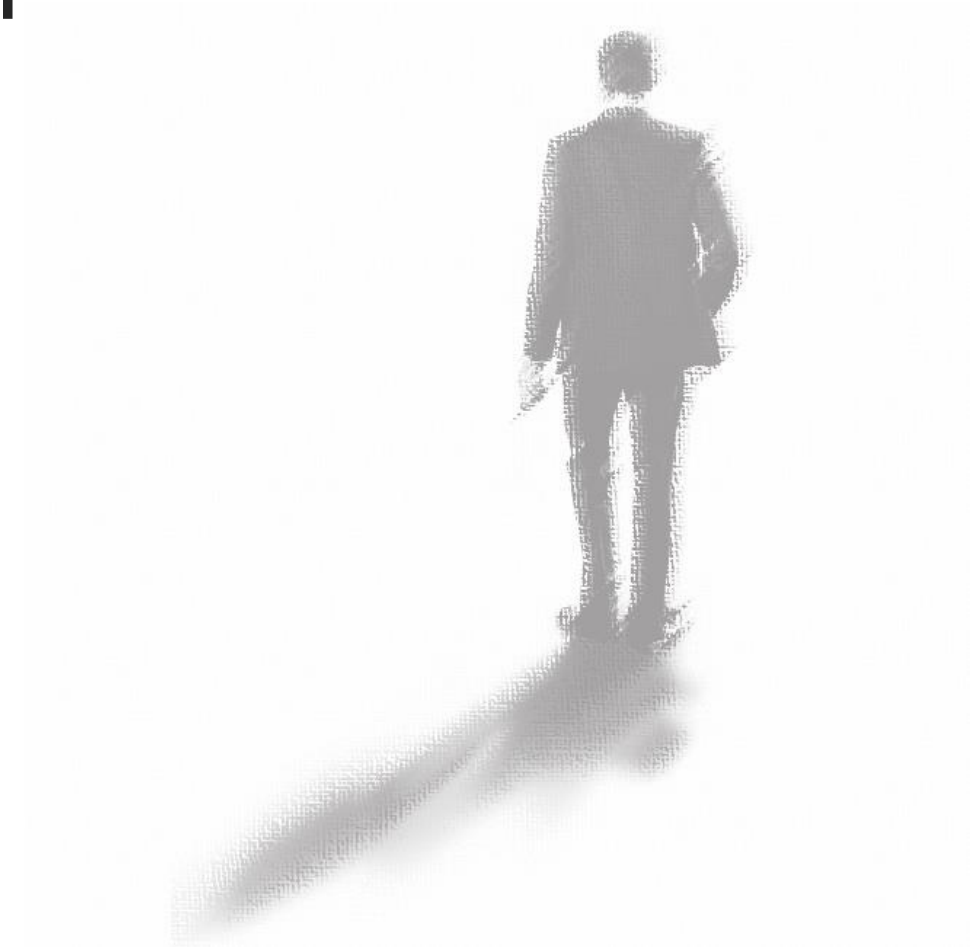


엠포스 기획시리즈

#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변화 탐색 세 번째. 대출 업계

2020. 05



엠포스 데이터랩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해 왔습니다.

분석 내용은 모두 자사의 사이트(<http://bigdata.emforce.co.kr/>)를 통해 공유되어 왔으며,  
본 보고서를 포함한 전체 게시물 수는 6개, 기획시리즈로는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대출**』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간의 쇼핑, 여행 분야가 코로나19에 “당면한” 사회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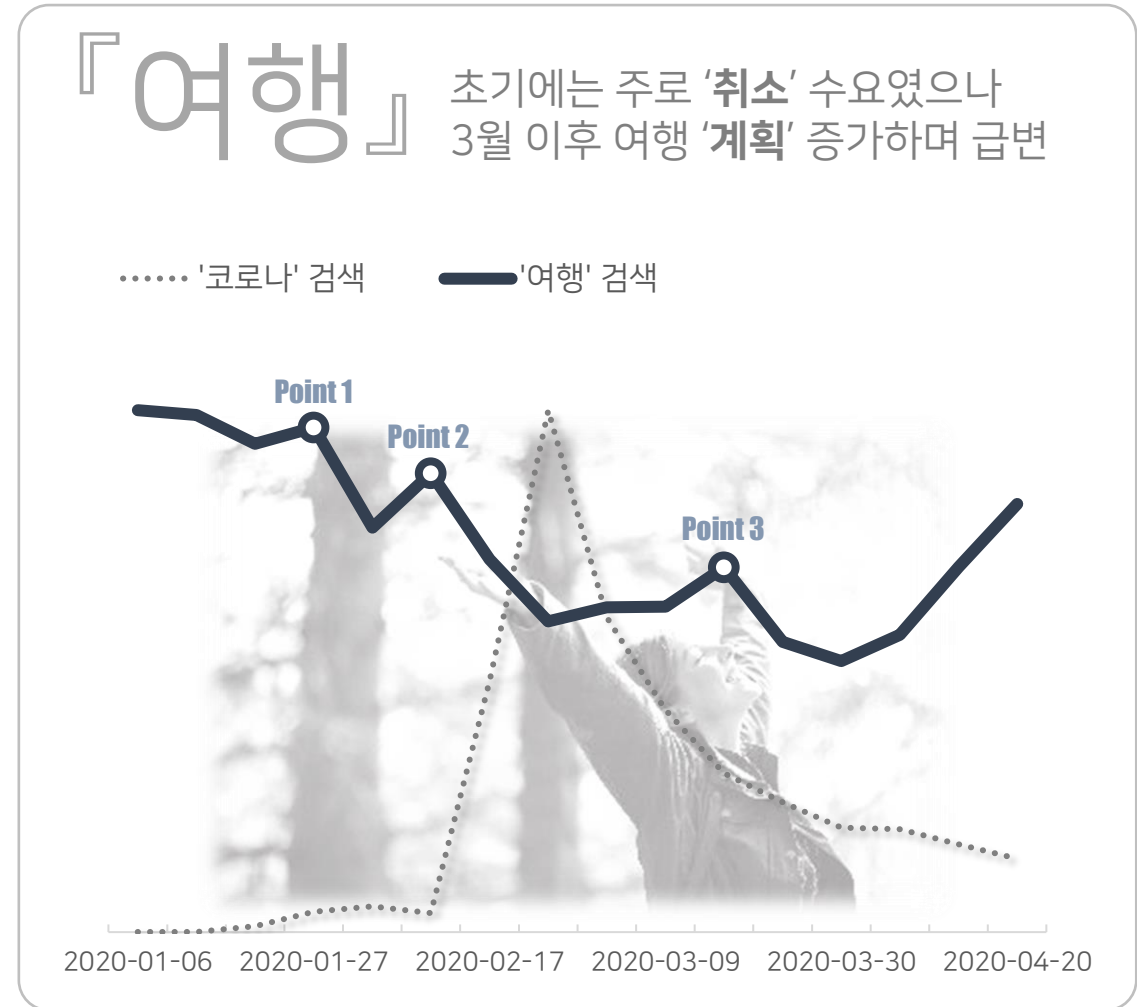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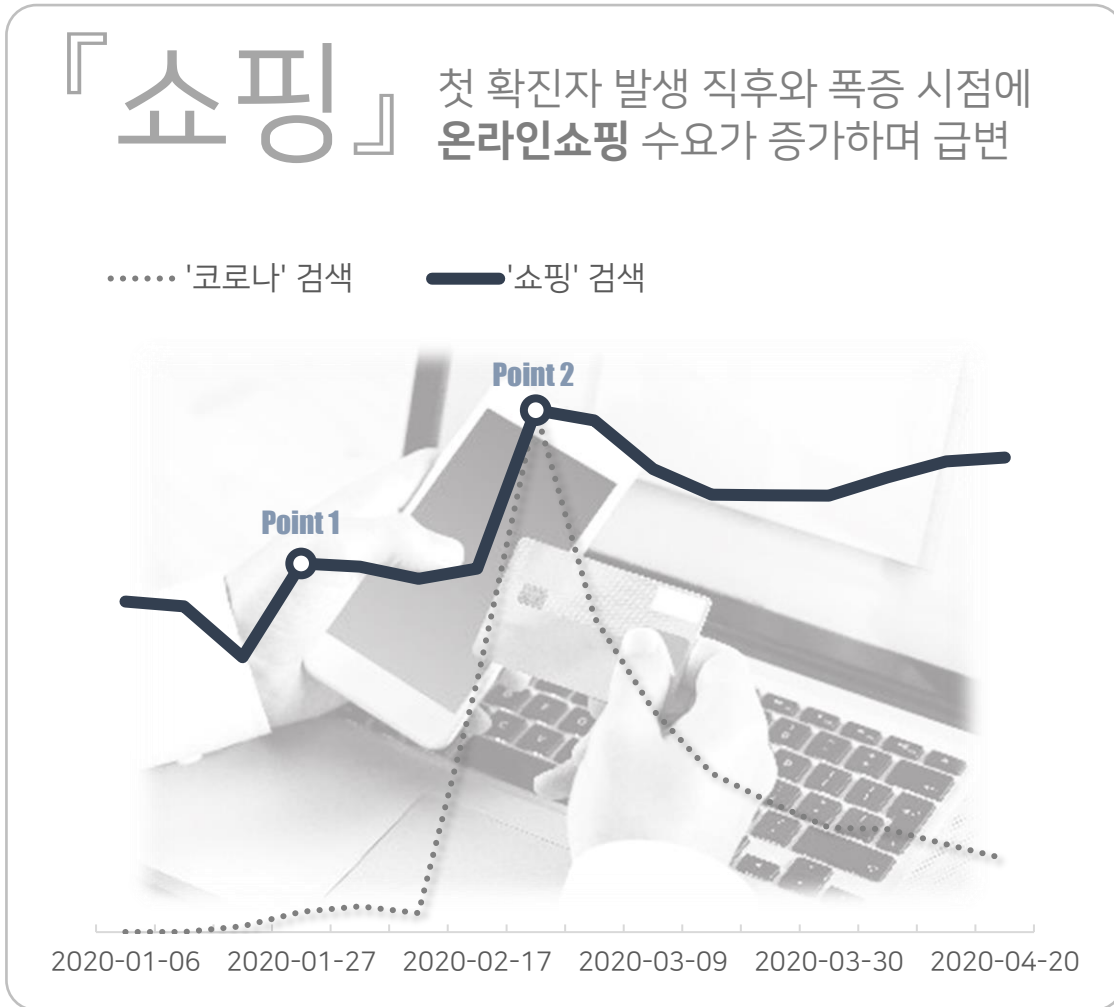
금융시장은 안정기 이후의 변화, 즉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기를 가늠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출’시장은 특히,  
시장 전반의 변화를 예견하는데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 데이터 설계 ]

본 보고서는 SNS 언급 내용(buzz)과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되,  
관련 논문이나 저서, 언론 기사 등 데스크리서치 자료를 폭넓게 활용했습니다.

대출 등 금융 시장의 경우, 기존에 분석했던 쇼핑, 여행 시장과 달리  
이제 막 여러 반응이 포착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조와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석한 **쇼핑 & 여행산업**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최소 2~3번의 변곡(variation)구간**이 존재하는데 비해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동(同) 기간의 대출 검색 추이를 보면  
급증 기간은 의외로 단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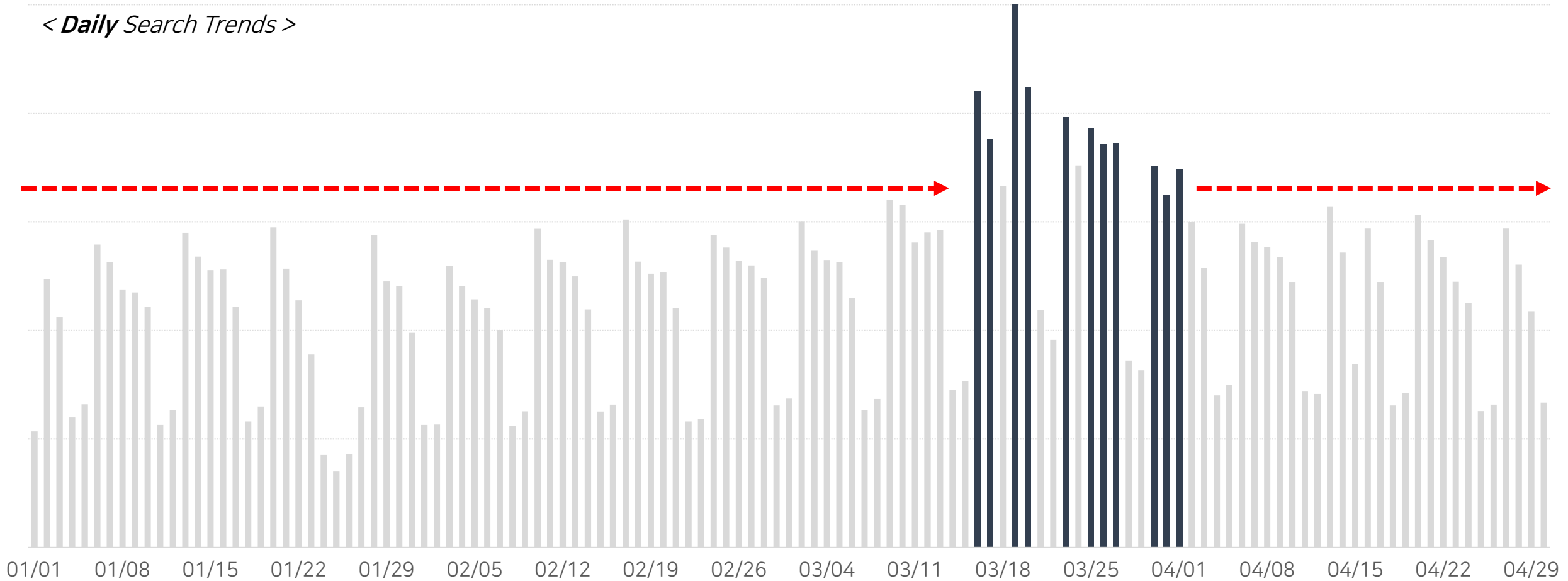
< Weekly Search Trends >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 일별 추이로 확인해 보면 비교적 특정 날짜에 관심 급증

< *Daily Search Trend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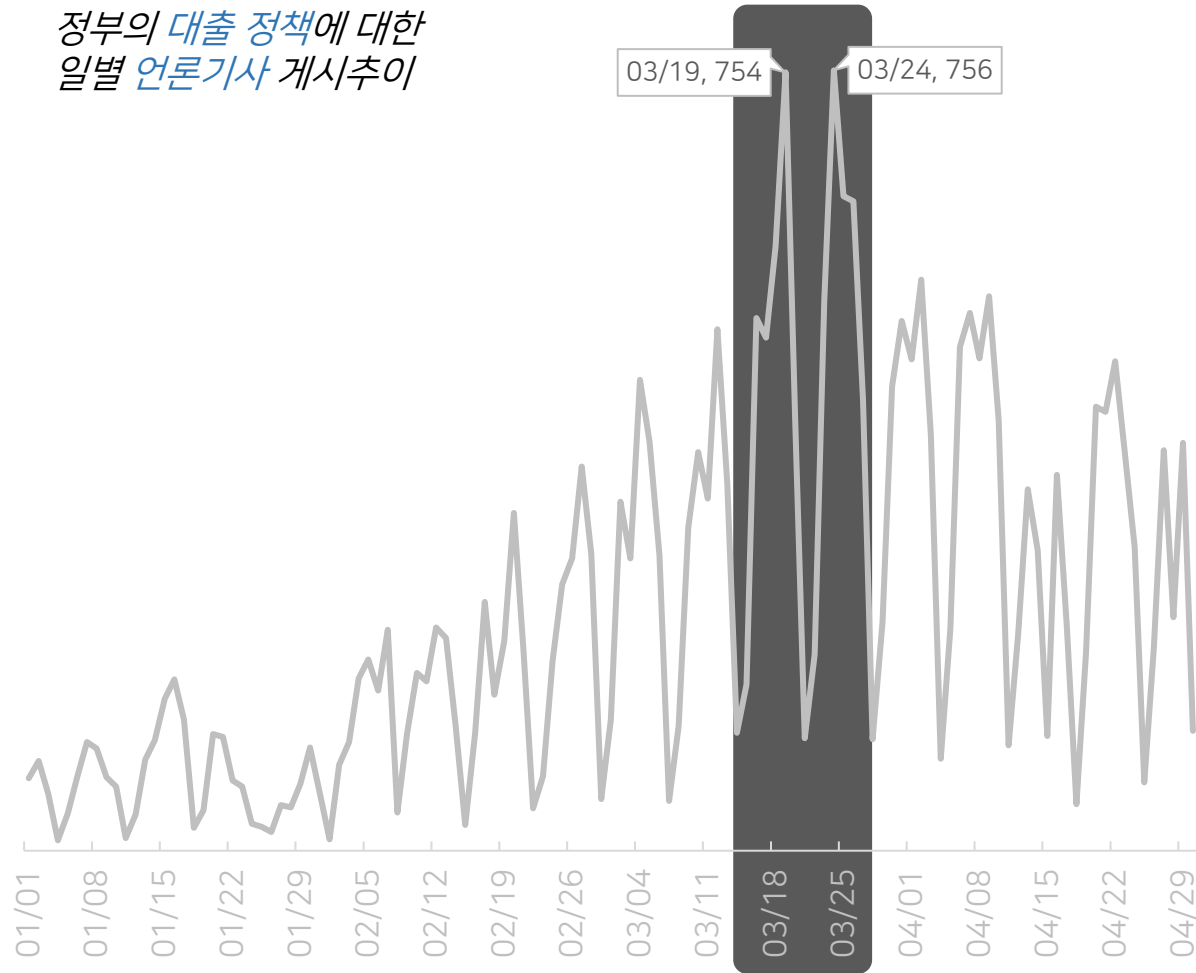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최근 한시적으로 증가한 대출 검색  
소비자의 수요 증가 원인 찾기

# 정부는 해당 시점, 경영자금과 대출자금 중심의 긴급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정부의 대출 정책에 대한 일별 언론기사 게시추이



## 3/19, 대표 언론 기사

**연암뉴스** PICK ①  
**문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종합)**  
 기사입력 2020.03.19. 오전 11:47 최종수정 2020.03.19. 오후 1:19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6,109 | 2,622

첫 비상경제회의... "상황 전개따라 필요하다면 2차 회의도 열어" 문대통령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으로 확대, 대출원금 만기연장 전 금융권 확대, 대출금 이자 지원 속도가 문제... 대출심사 간소화·적극행정 "더많은 대책 필요...수입·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

## 3/24, 대표 언론 기사

**연암뉴스** PICK ①  
**문대통령 "기업구조긴급자금 100조 투입... '코로나 도산' 막겠다"(종합)**  
 기사입력 2020.03.24. 오전 11:56 최종수정 2020.03.24. 오후 2:54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3,448 | 2,279

요약본 | 가 | |

**문대통령 "기업구조긴급자금 100조 투입... '코로나 도산' 막겠다"**  
 연암뉴스 | > 1,159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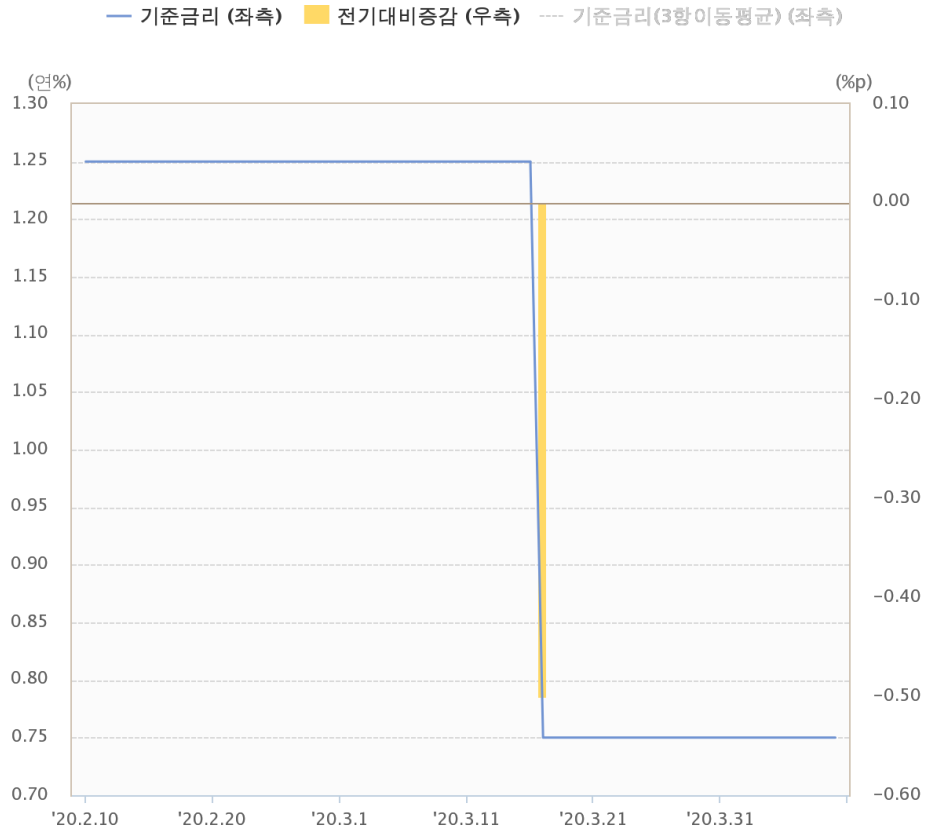
**"기업도산 반드시 막을 것... 100조원 긴급 투입"**  
 00:00 06:48 | 자동 ^ | NAVER TV

2차 비상경제회의... "1차 회의 50조원서 대폭확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  
 "경쟁력있는 기업 유흥성착 문닫는일 없을것...중권안정펀드 10.7조, 2008년의 20배"  
 "채권안정펀드 20조원으로 늘려, 회사채 매입...4대 보험료·공과금 유예 내달 시행"  
 "세계경제 위기, 끝을 가능하기 어려워...우리 경제 근간인 기업 큰 위기"

\*Source : Social Matrix

# 그에 앞서 '빅컷'이라 불리는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 (1.25% → 0.75%)

## 최근까지의 일별 기준금리 추이



# BIG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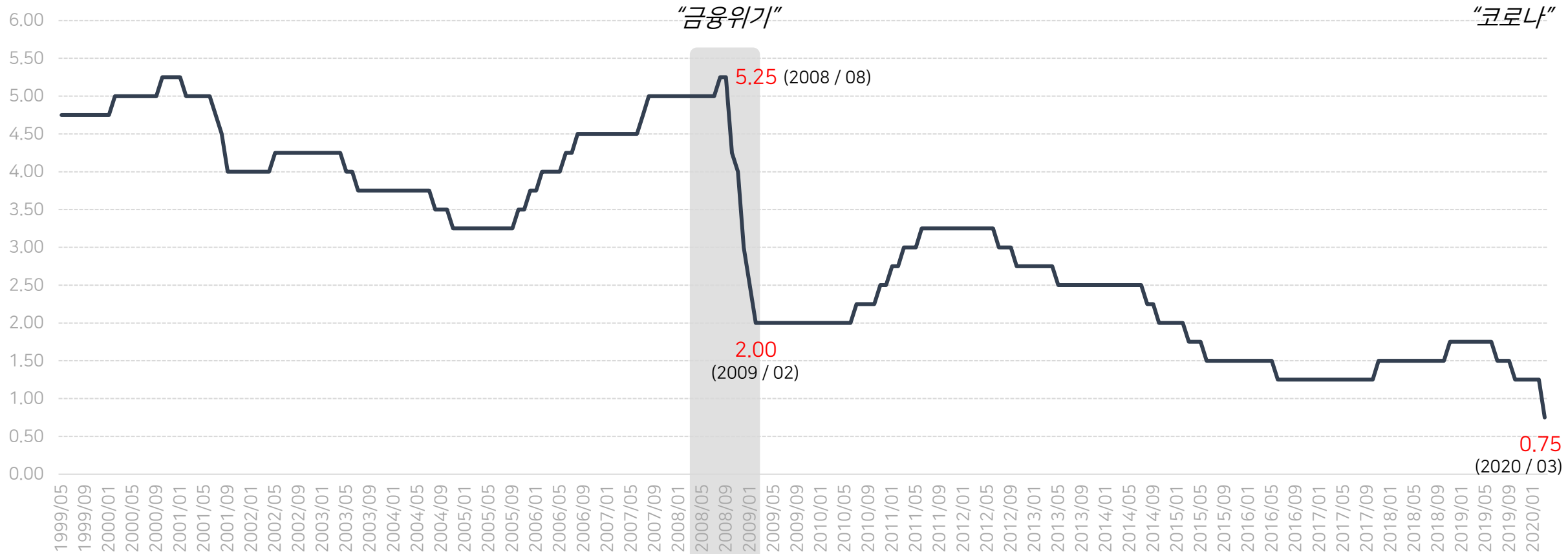
## “빅컷”

\* 통상적인 1회 금리 인하 수준인  
0.25% 포인트의 2배에 달하는  
**0.50% 포인트**를 인하한 경우를 의미



# 최근 '빅컷'이 회자되는 이유는 1.0% 미만의 역대 **최저** 금리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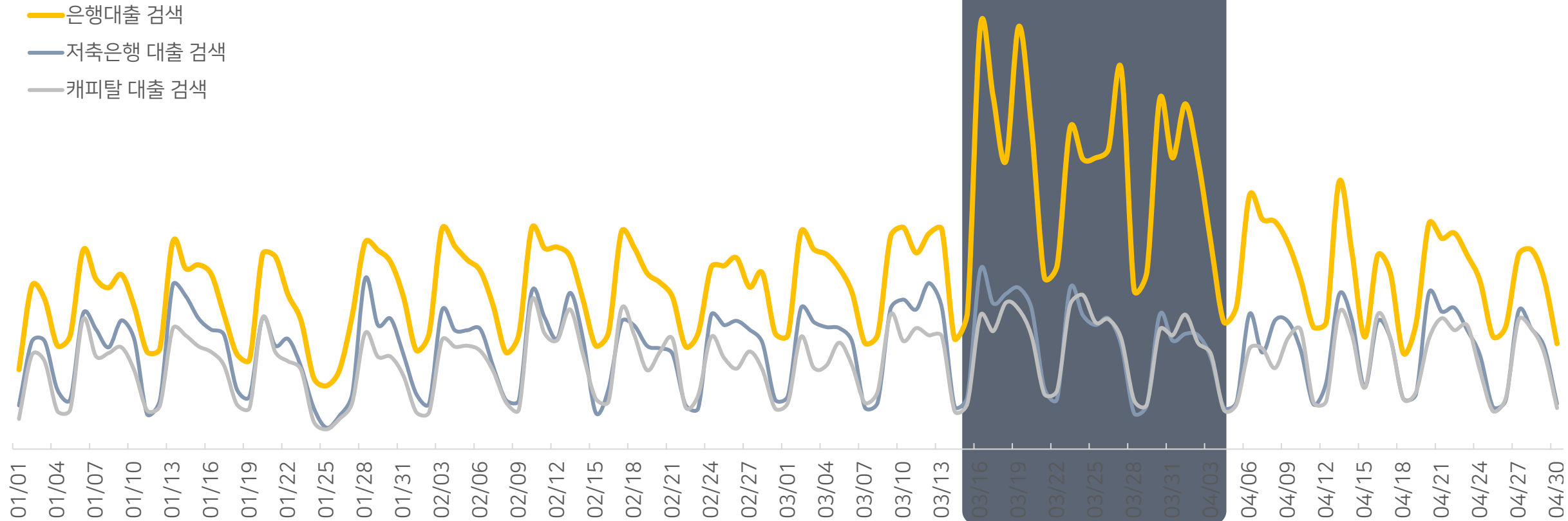
1999.05 - 2020.03  
월별 기준금리 추이



\*Source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1금융에 대한 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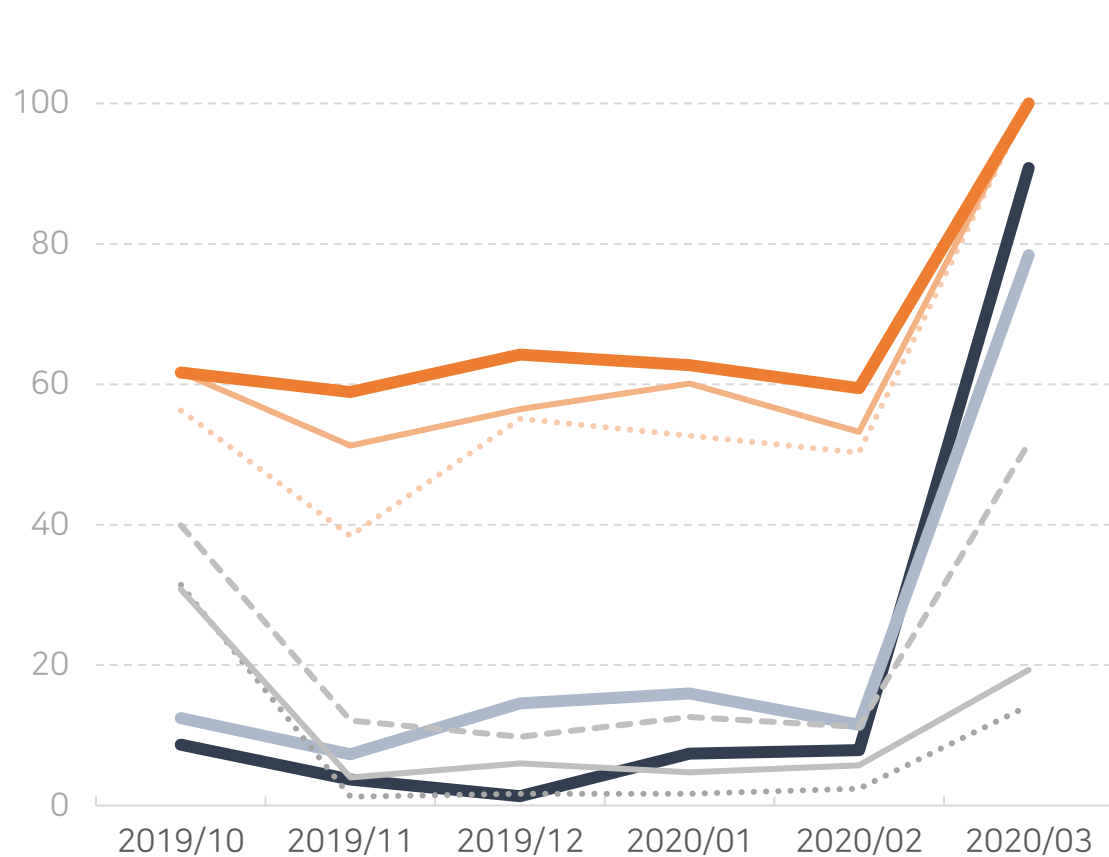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출 관련  
네이버 검색 추이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 시장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프리랜서 신청 급증

주요 대출 관련 키워드별  
네이버 검색 추이



	지난 2월 대비 3월 증가율	2019 동기간 대비 3월 증가율	최근 한 달 검색량
소상공인운영자금대출	1050%	1227%	330건
대구사업자대출	582%	새롭게 진입	240건
병원대출	488%	229%	230건
학원강사대출	361%	946%	730건
어린이집대출	238%	105%	350건
광주대출	99%	111%	360건
일용직대출	88%	95%	5,360건
프리랜서대출	68%	118%	14,340건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연관키워드	연관키워드	월간검색수		월평균검색수		월평균검색률		경쟁강도	월평균 노출 광고수
		PC	모바일	PC	모바일	PC	모바일		
추가	다음	28,100	129,100	427.9	4,309.2	1.6%	3.52%	높음	15
추가	다음상당사	2,180	7,150	16.5	116.8	0.84%	1.77%	높음	15
추가	소셜다음이문곳	30	90	0.6	1.5	2.4%	1.95%	높음	15
추가	커뮤니티다음	810	4,780	18.5	218.8	2.38%	4.92%	높음	15
추가	커뮤니티	4,790	13,400	56.7	431.5	1.26%	3.41%	높음	15
추가	소셜다음	40	200	0.6	3.3	2.95%	5.63%	높음	15
추가	직접인부채용다음	20	200	0.6	3.3	2.95%	5.63%	높음	15
추가	인하남여성다음	20	200	0.6	3.3	2.95%	5.63%	높음	15
추가	무직자소셜다음	6,200	66,400	232.8	5,898.4	3.95%	9.31%	높음	15
추가	저속전망다음	1,050	4,510	23.1	187.3	2.28%	4.42%	높음	15
추가	신용다음	10,100	50,300	107.9	1,388.8	1.12%	2.92%	높음	15
추가	무직자다음	9,130	51,500	268.5	3,980.4	3.11%	8.18%	높음	15
추가	저속전망	13,100	28,700	149.7	1,087	1.2%	4.08%	높음	15
추가	신용별망자다음	1,560	14,500	52.8	1,312.2	3.5%	9.3%	높음	15
추가	다음상당	960	3,120	40.5	110.8	4.38%	3.9%	높음	15
추가	모바일다음	1,760	15,200	42.4	905.2	2.57%	6.27%	높음	15

그런데 전체 검색(광고) 키워드를 보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Source : NAVER 광고 「연관키워드」

# 소상공인 대출 수요 못지않게 「생활자금」 검색이 상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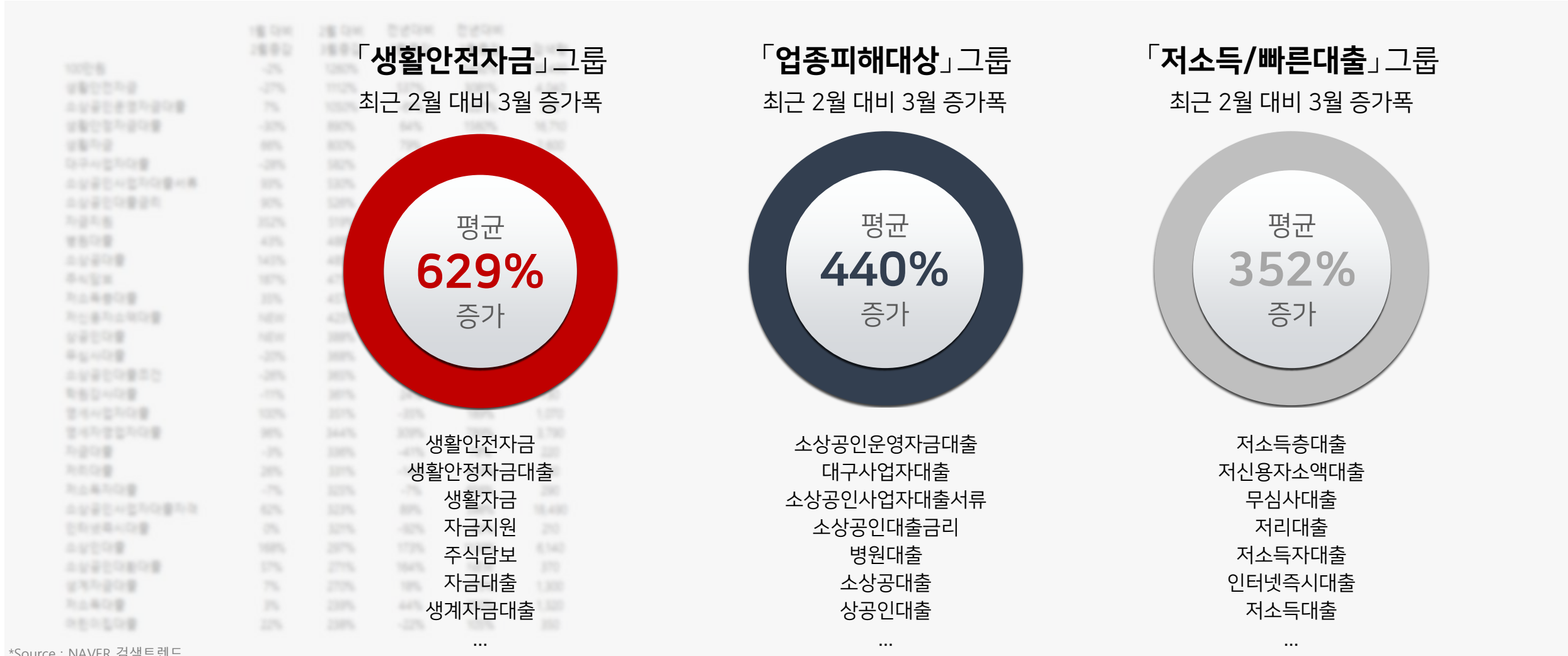
	2020년		'19-'20년		검색량
	1월 대비 2월증감	2월 대비 3월증감	전년대비 2월증감	전년대비 3월증감	
100만원	-2%	1260%	10%	1492%	35,400
생활안전자금	-27%	1112%	537%	3081%	4,040
소상공인운영자금대출	7%	1050%	-61%	1227%	330
생활안전자금대출	-30%	890%	64%	1560%	16,710
생활자금	66%	800%	79%	1647%	2,600
대구사업자대출	-28%	582%	880%	NEW	240
소상공인사업자대출서류	93%	530%	164%	1934%	18,200
소상공인대출금리	90%	526%	3%	442%	1,200
자금지원	352%	519%	332%	1178%	590
병원대출	43%	488%	-8%	229%	230
소상공대출	145%	485%	85%	1047%	4,960
주식담보	187%	475%	1050%	562%	220
저소득층대출	35%	457%	-62%	29%	1,780
저신용자소액대출	NEW	425%	-68%	400%	740
상공인대출	NEW	388%	-88%	-39%	310
무심사대출	-20%	368%	27%	285%	1,810
소상공인대출조건	-26%	365%	-63%	79%	3,420
학원감사대출	-11%	361%	24%	946%	730
영세사업자대출	100%	351%	-35%	189%	1,070
영세자영업자대출	96%	344%	309%	789%	3,790
자금대출	-3%	336%	-41%	78%	220
저리대출	26%	331%	-14%	453%	530
저소득자대출	-7%	325%	-7%	656%	290
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62%	323%	89%	598%	18,490
인터넷즉시대출	0%	321%	-92%	-63%	210
소상공대출	168%	297%	173%	1139%	6,140
소상공인대환대출	57%	271%	164%	NEW	370
생계자금대출	7%	270%	18%	275%	1,300
저소득대출	3%	239%	44%	250%	1,320
어린이집대출	22%	238%	-22%	105%	350

절대적인 **검색량**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대출** 수요가 월등,

2월 대비 **3월 증가폭** 기준으로는  
**생활자금**에 대한 수요 우위

\*Source : NAVER 광고 키워드

# 상위 30개 키워드를 그룹화 해 보면 이러한 최근 상황은 좀 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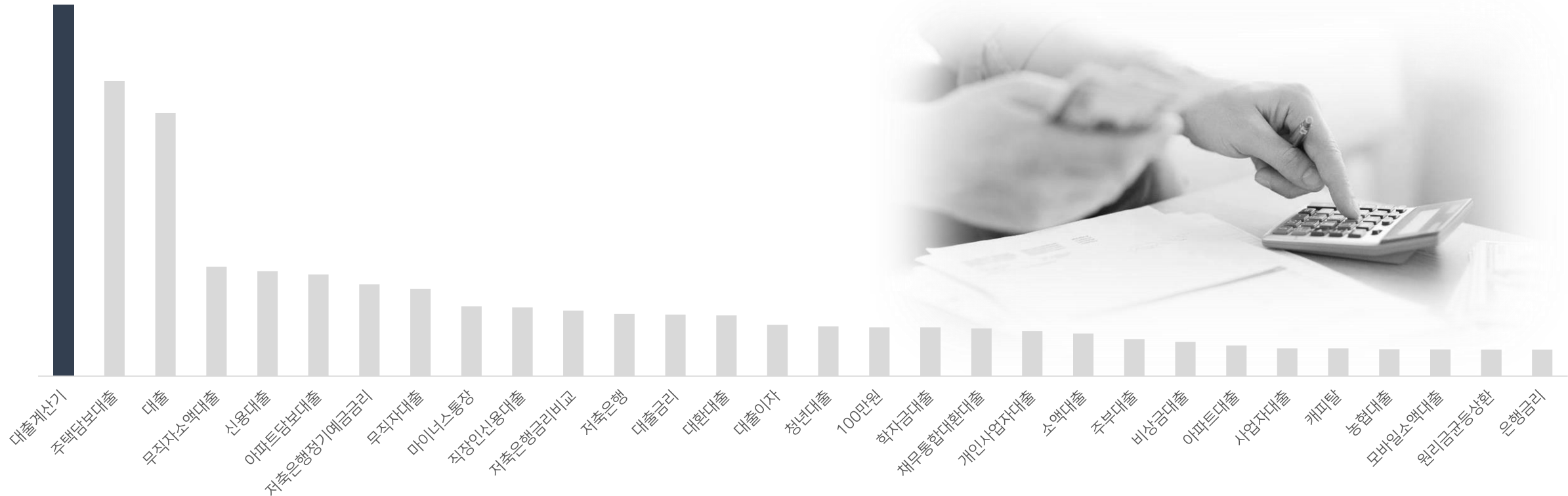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소비자 유형 탐색

# 조금 다른 얘기지만, 대출과 함께 검색되는 수많은 키워드 중 부동의 1위를 꼽으라면, 단연 『대출계산기』

대출 관련 키워드  
검색량 기준 To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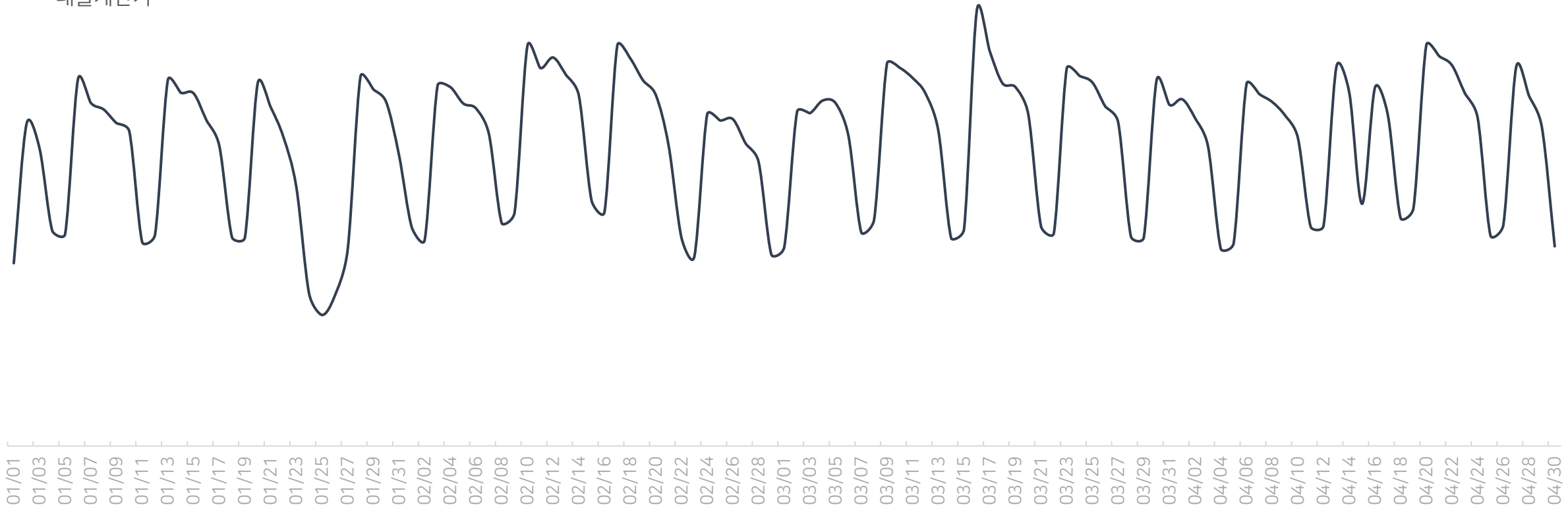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 대출계산기에 대한 검색은 코로나 기간에도 큰 동요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

포털사이트  
검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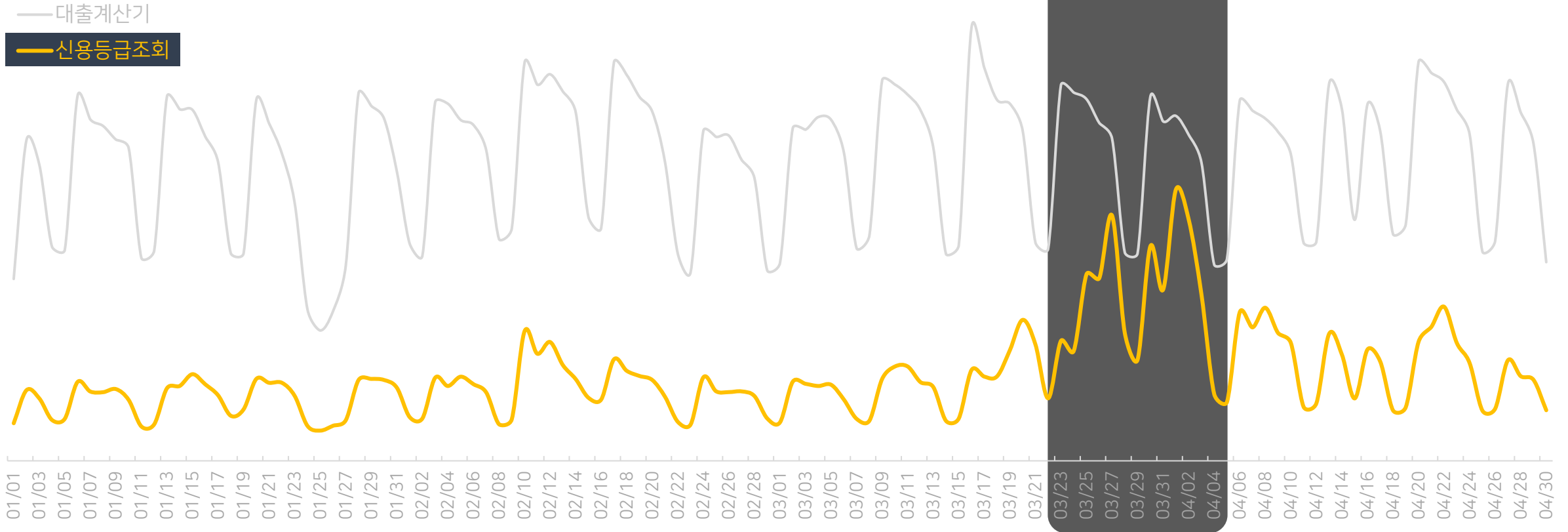
—대출계산기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그런데 최근 대출 수요가 급증한 시점에  
유독 『**신용등급조회**』 검색이 급증

포털사이트  
검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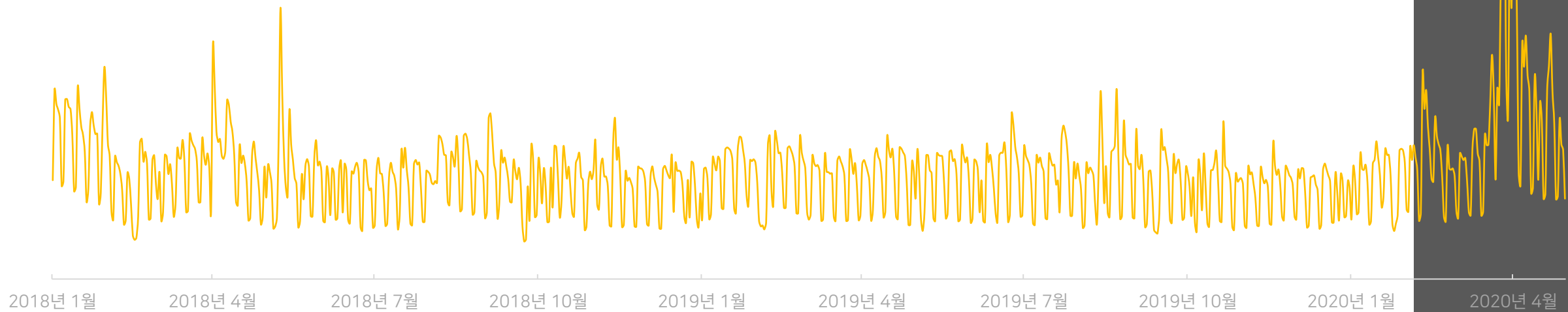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 최근의 '신용등급조회' 검색 급증이 놀라웠던 건 사실 역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

포털사이트  
검색량 추이

— 신용등급조회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자신의 신용등급을 검색하는 사람들  
새로운 집단의 유입 가능성 시사

그런데 여기서 뜻밖에도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타겟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즉, 새로운 집단의 유입을 변별하고 정의하기 위해  
전체 소비자의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 Demography

성, 연령, 직업 등 기반의 인구통계학 관점

# Needs

표면적으로 드러난 태도 외  
심리적, 본질적 욕구

# Key Buying Factor

금융사, 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 상품 결정을 위한 고려 요소

Target  
Definition

# Philosophy

대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념체계

# Demography

대출 시장 특성 상, 연령/직업에 따른 영향보다  
개인이 처한 환경, 상황에 따른 영향 클 것으로 판단

Needs

Key Buying Factor

최근 급증한 대출 수요는  
Life Plan에 따른 **선택적 수요**가 아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생존 수요**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평소의 소비 태도를 동일하게 투영하기 어려울 것,  
즉, 기존 세분화 기준인 KBF / Needs / Philosophy 관점 적용도 불가

Philosophy

“저는 신용등급 조회하니깐 **3등급** 나와서  
일반 은행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반 은행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걸까요? 대출 안 받으면 좋겠지만 ㅠㅠ”

“신용등급 **1등급**이고 작년 매출 5000인데 올해 매출 500이구요  
2월1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90% 이런것도 아니고 100% 다 취소되어..  
그래서 대출 알아보는 중”

“코로나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에서 극저신용대출을 하네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사실상 일반 대출은 못 받는 분들을 위해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을 한답니다”

“긴급대출 천만원 그거 받고 싶은데  
꼭 신용등급 4등급이여야 받을수 있나요?  
**3등급**인데 중복 안될까요? ㅠㅠ”

“코로나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토스로는 7등급이고 나이스에서는 **5등급**입니다  
가능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신용등급** 얼마나 떨어질까요? ㅠㅠ  
코로나 대출 받고 신용등급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Demography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상공인 대출은 안되고요  
**신용등급**으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없을까요?  
이율이 가능하면 저렴한걸로 .. 절실합니다”

“신용등급 조회하니깐 **2등급** 나오던데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대출 금액이 많아도 해주나요?”

“18년도 종소세가 2천이상 되시고  
**3등급** 이내면 무난히 3천 나올꺼라 합니다.”

“얼마 받으면 많이 받을까요?  
**신용최고등급**인 전제 하에 얼마나 해줄까 싶어서요”

“신용등급은 **1등급**인데 (대출받아본 적 없어서 그래요.)  
제 이름으로 가게 하나 하고 있어요.  
소액대출 (500안쪽)으로 받고 싶은데 신청하면 빨리 나오나요?”

“4월1일부터 **신용등급**으로 해서 한도도 달라지고 그렇던데  
이미 3월 초 중순에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사람은 어떻게 되논곤가용”

“소상공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코로나 대출은  
신용등급이 **4등급**부터 가능한가요? 1등급부터3등급은 못 받는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기준은,

# 信用等級

( 신 용 등 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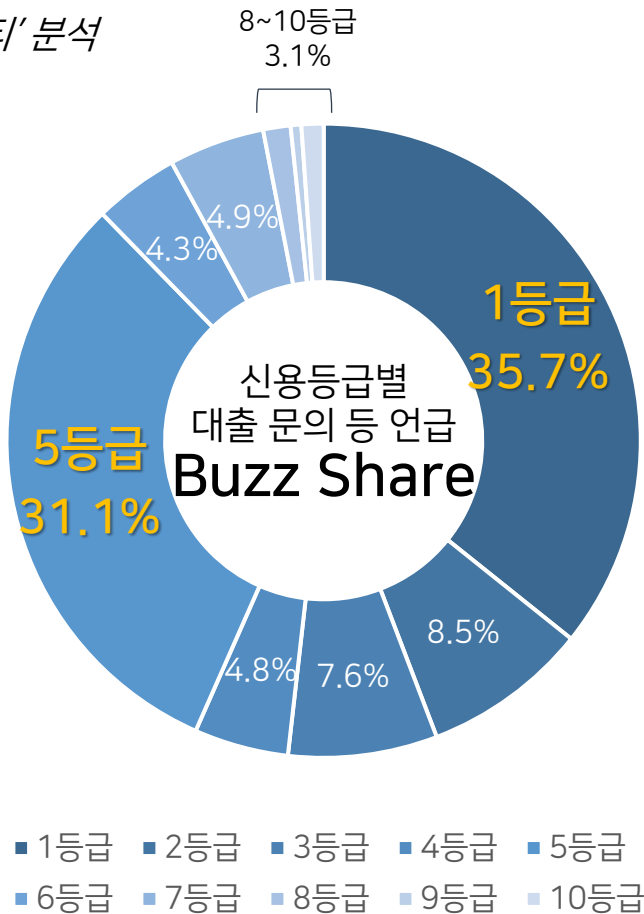
소비자의 대출 관련 문의/언급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Philosophy



## 최근 1월-4월까지, SNS 상의 대출 관련 언급을 보면 1등급 & 5등급 소비자들이 대부분

SNS  
'커뮤니티' 분석



\*Source : Social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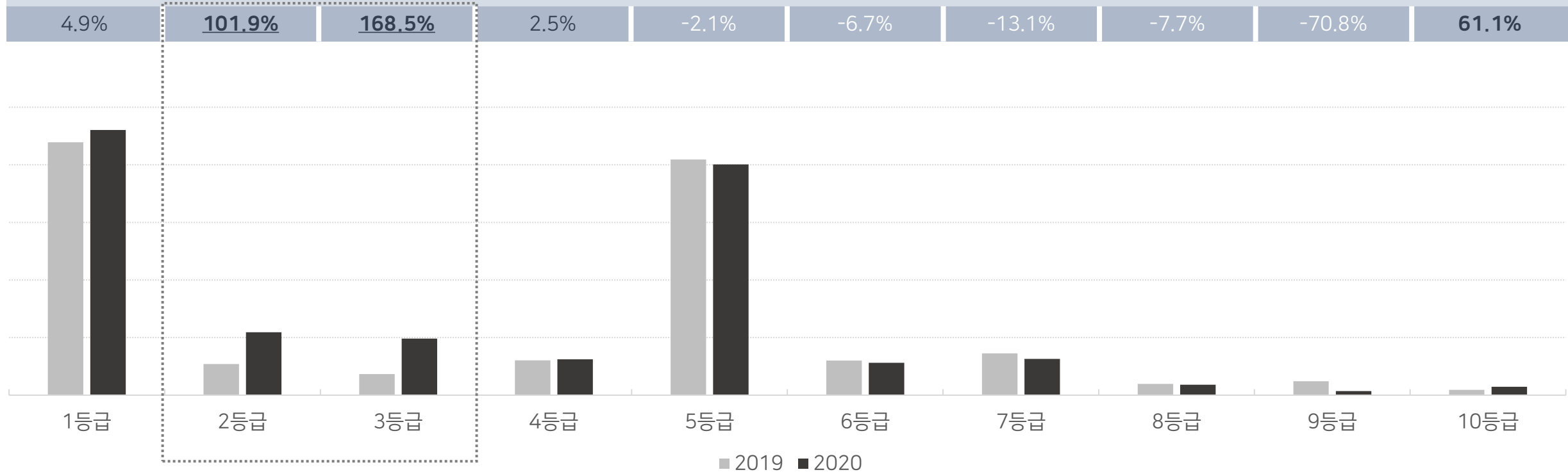
등급	구분	의미 및 특징
1~2등급	최우량	오랜 신용거래 경력 및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 보유, 부실화 가능성 매우 낮음
3~4등급	우량	활발한 신용거래 실적은 없으나, 연체가 없는 고신용등급 부실화 가능성 낮음 (일반 급여생활자 등)
5~6등급	일반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 경험이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도 '있으며' 부실화 가능성 일반 수준 (자영업자 등)
7~8등급	주의	비교적 금리가 높은 금융업권과의 거래가 '많은' 고객으로 단기연체 경험이 '많으며' 따라서 부실화 가능성 높음
9~10등급	위험	현재 금융상품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 보유, 부실화 가능성 매우 높음

\*Source : 금융감독원

# 그런데 이를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3등급 소비자들이 유독 증가

SNS 커뮤니티  
언급 내용 분석

※ 2019 - 2020, 1월~4월까지의 등급별 SNS 커뮤니티 정보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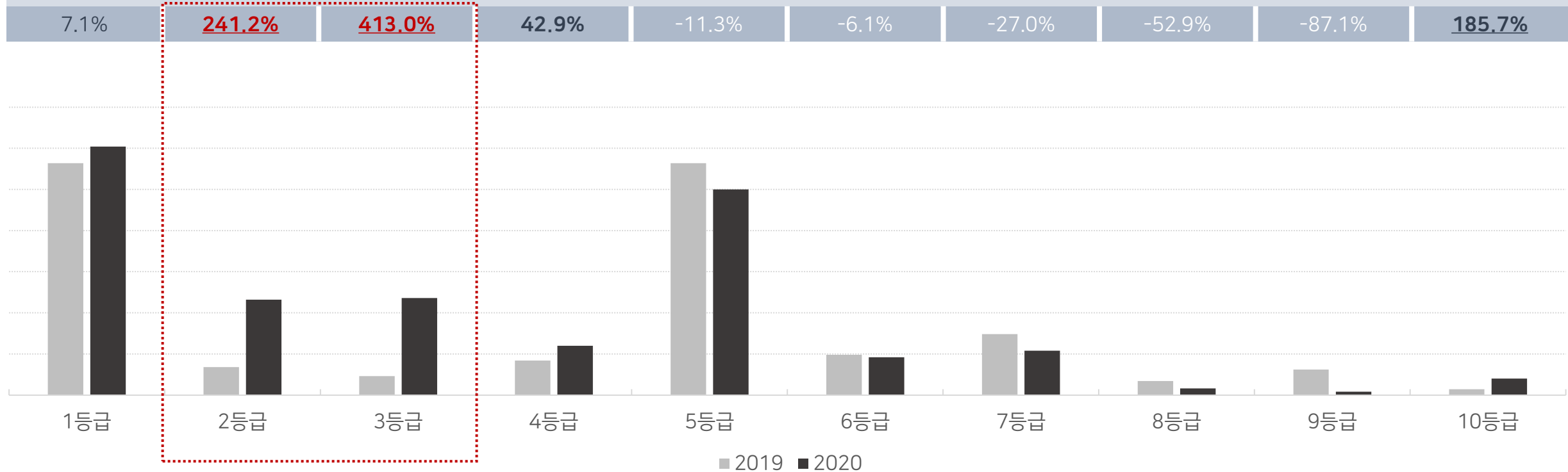


\*Source : Social Matrix

# 대출 관심이 집중되었던 3~4월 기준으로 보면 2~3등급 소비자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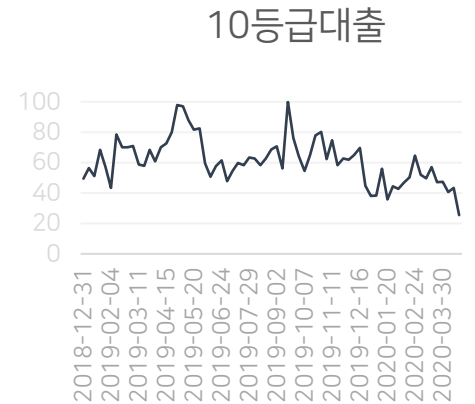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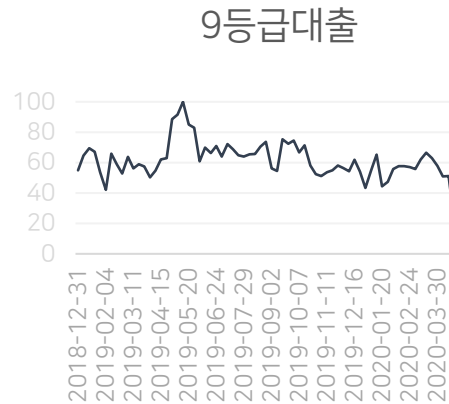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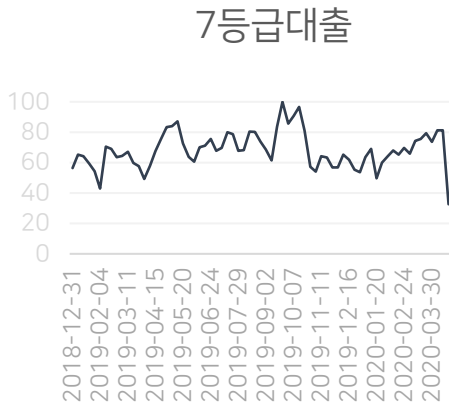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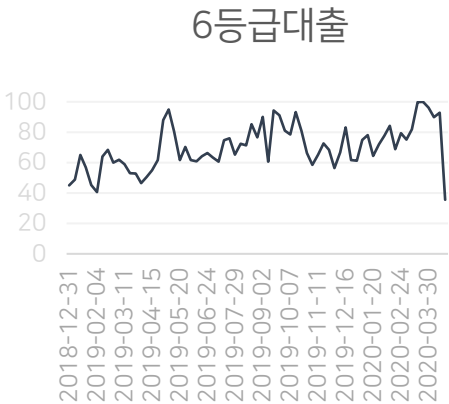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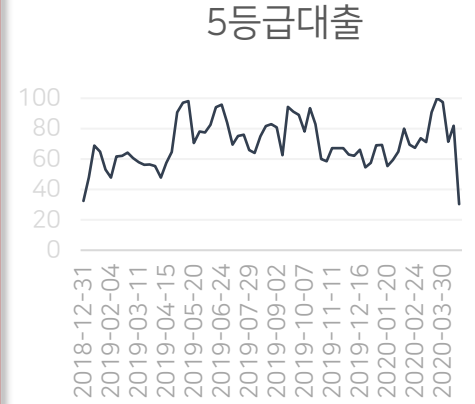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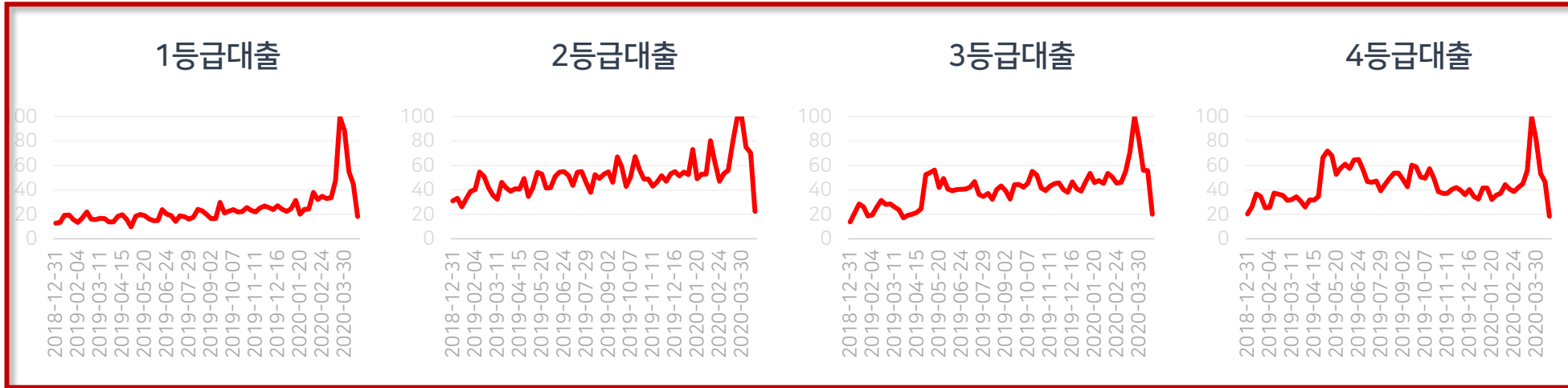
SNS 커뮤니티  
언급 내용 분석

※ 2019 - 2020, 3월~4월까지의 등급별 SNS 커뮤니티 정보량 증감률



\*Source : Social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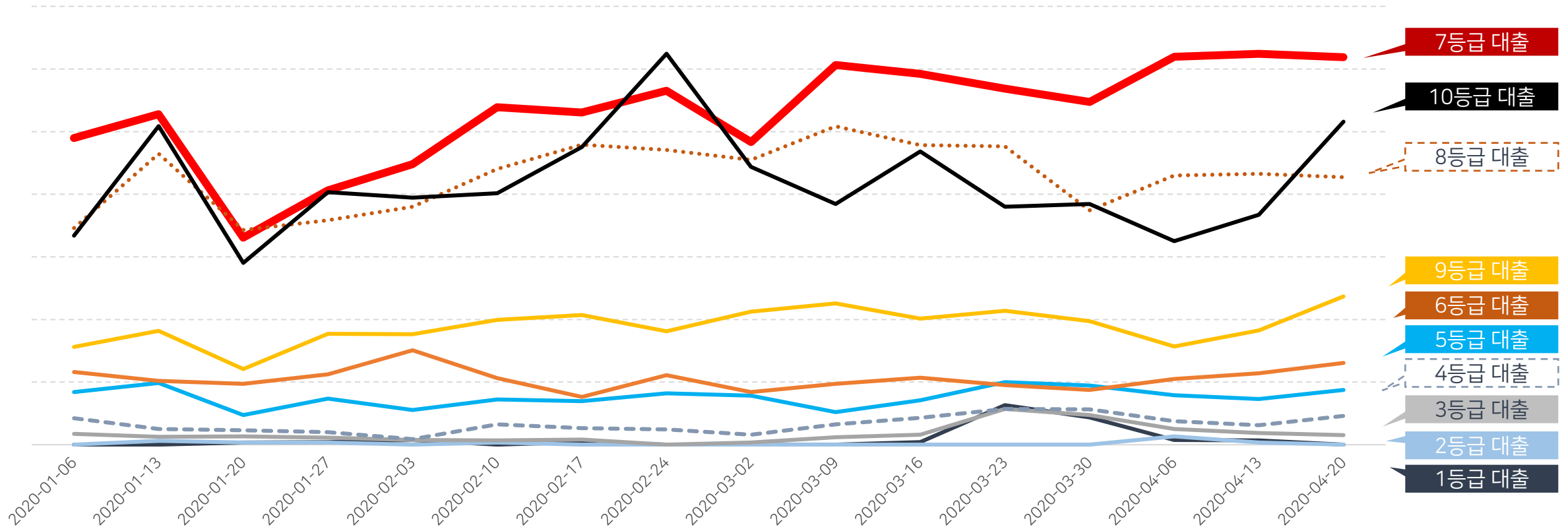
# 비단 SNS 언급 뿐만 아니라 검색 추이에서도 유사한 양상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물론, 대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7~8등급 & 10등급**이 높은 편이나,

등급별  
검색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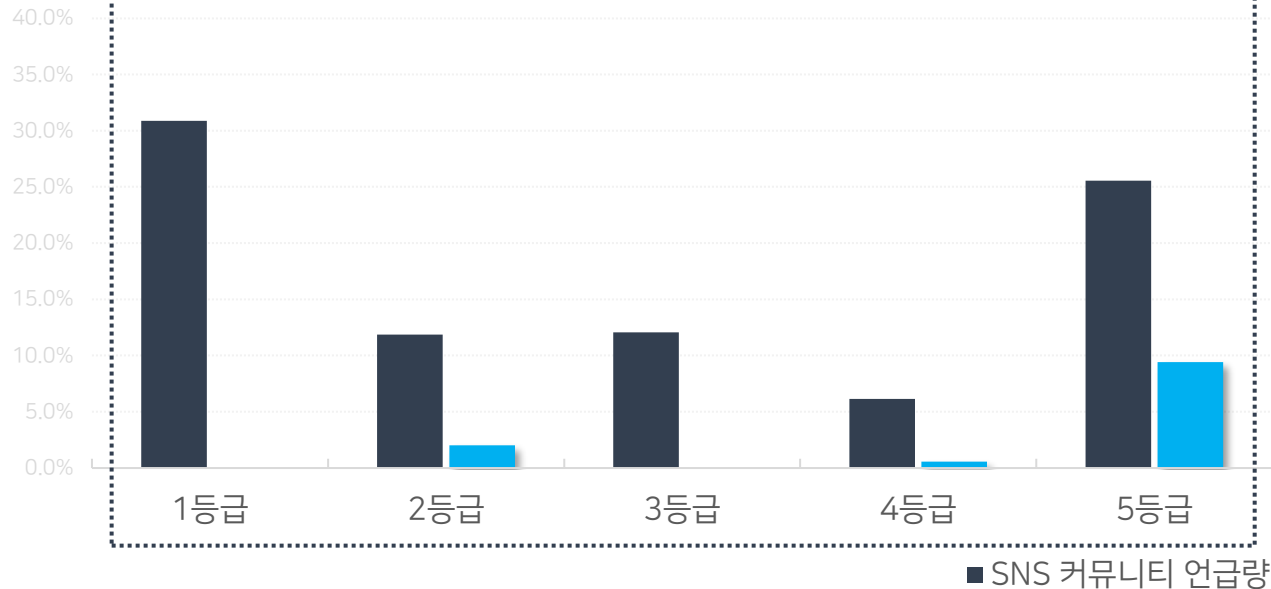


\*Source : NAVER 검색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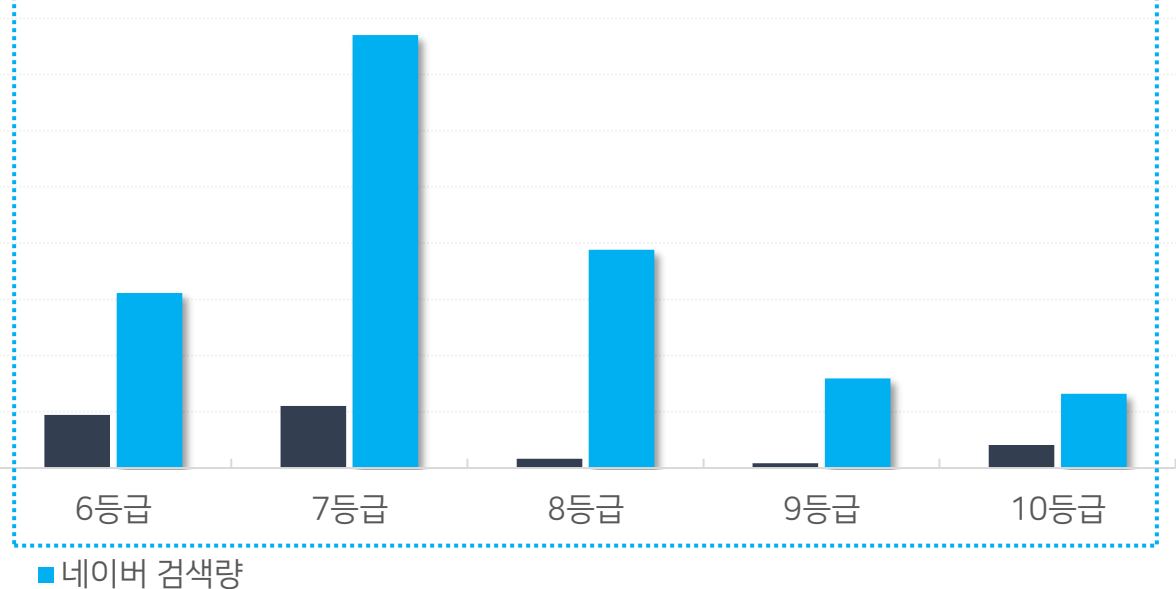
## ■ 아직 1~5등급까지의 상대적 고신용자의 경우 본격적인 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급별 SNS언급 및  
검색 비중 비교 (1~10등급 합이 100%)

상대적 고(高)신용자의 경우 아직까지는 SNS를 통해 주로 고민 공유  
추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경우 본격적 검색 가능



상대적 저(低)신용자의 경우 직접 검색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익숙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 덜하나 확대 가능



\*Source : SNS 언급량 & NAVER 검색트렌드

수입이 안정적이고 부실 가능성이 낮았던 고신용자의 유입  
벌써부터 대출 시장에서 감지되는 이상 기류

# 16조 소상공인 지원금 바닥...5월은 '대출 보릿고개'

장형태 기자

입력 2020.05.05 13:17 | 수정 2020.05.05 16:19

정부 소상공인 대출 지원 16조4000억원 바닥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 오는 6일 마감  
2차 대출은 10조원 규모로 18일부터 시작  
심사 기간 고려하면 5월엔 추가 대출길 없어



2020년 4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정부센터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지원금 받기 위해 줄서 있다. /주원준 기자

PRIGIO 서울 서초구

서울 최중심에 세운 첫 번째 프리미엄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5월 오픈 예정 | 1577-2237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달 말까 사실상 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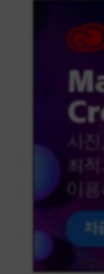
터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월말인 25일에야 심사 라는 말이 나온다.

후 6시에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최대 명이 마감된다. 3조1000억원 지원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4~6등급 중신용자 소상공인에게 연이율 15%로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7조8000억원)도 지난달 29일에 소진됐다.

정부가 1차로 마련한 16조4000억원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중 아직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품은 1~3등급 고신용자 대상의 이차보전 대출(5조5000억원)정도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신용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측보다 소상공인 대출 자금이 빨리 소진되는 기가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비상 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2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주요뉴스

1조원 방사  
청구가 못

코스피 가

[환율] 원

장관급 국  
중선 후 첫

카카오T플

실시간 령킹

- 1 "당뇨"
- 2 기본급
- 3 "불면증
- 4 "빚" 많
- 5 배우 직
- 6 "관절염
- 7 58세 "노
- 8 코로나

HOT 10

- 1 [종합]
- 2 [단독]
- 3 "난 조

정부가 마련한 16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이 자금 긴급수혈을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다...

...'5월이 소상공인 대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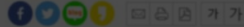
... 여기에 아직 1차 대출을 신청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출처 : 조선일보 2020.05.0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10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10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소상공인 대출 지원의 빠른 소진, 보릿고개 서막



# 적금 깨고 생활비 대출까지...직장인 43.8% "코로나로 생계 어려워져"



등록 2020-05-06 08:21:46

무급휴가, 급여삭감 등으로 월 급여 4분의 1 감소  
급여감소분 충당처는 예적금·보험 해지> 생활비·지인 대출> 부업시작

## 적금 깨고 생활비 대출까지... 코로나19發 월급쟁이 간혹사

조사대상: 직장인 576명      조사기간: 4월 20일 ~ 4월 28일(9일간)

### Q. 코로나로 인한 '급여손실'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서울=뉴시스] 김중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급여손실분 충당을 위해 일부 직장인은 예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즐기는 만능밴츠**  
₩29,800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코로나19 이후 76명의 의견을 청

**다지카패 신규 가입 혜택**

100% 햇생두로 당일 볶아 더 신선한 스페셜티 원두

**1,000원**

혜택자가 밝힌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입력 받았다. 집계 결과 집계는 일주일,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최장기간은 116일로,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평균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 24.9%로 집계됐다. 월급쟁이 급여의 4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타격은 컸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분으로 인해 가게에 타격을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 특히 앞선 무급휴가, 권고사직 해당자들의 응답비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은 해지와 대출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중복응답) '예적금 해지(16.8%)였다.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비율까지 더하면 24.4%로 높아진다.

### 많이 본 뉴스

- 1 "집 근처까지 출근 집안였다" 내...
- 2 진중권 "위안부 할머니, 운동 수단...
- 3 남성 손님에게 핏맥스 입힌 유튜...
- 4 전현무-이혜성, 열애 6개월만에 결...
- 5 이태원 클럽 관련 서울 확진자 11...
- 6 용인 확진자 입국자 13명 감소...
- 7 "확진" 살남시외로원 남자간호사...



### 기자수첩 >

- 소셜공인 인증대중 플랫폼에서 한달까지 소셜공인 인증대중이 지난 6일 종료됐다. 신용보증기...
- 남양주 용유 ETV 시장 대체로 끝나 최근 국제 유가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자 일확천금

### 오늘의 주요 정보

"72억" 로또당첨자 전액기부 후 일찍...  
장 문자는 어깨통증...회전근개 파열여...  
"역류성식도염, 가슴통증" 원인 밝혀, 간...  
추적60분, "당뇨, 고혈압" 절대 약 먹지 ...  
로또용지 배리지마라, 뒷면 자세히보...  
남편몰래 3년간, 로또당첨 송진아내 ...  
17억 로또도 아내, 당첨금 독차지하려 ...  
한국로도 채지워가, '개발자 사기극' 발...



### 산업 핫 뉴스

- 1 중앙박물관 등 국립 박물관도...
- 2 [Q&A]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1일 ...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은 해지와 대출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중복응답) '예적금 해지'(16.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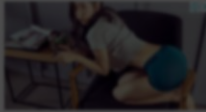
...'생활비 대출'(13.3%) 시행과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림'(5.5%)으로써  
급여감소분을 해소하려..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도...

...평균 대출 필요 금액은 453만원으로 집계..  
많게는 3천만원의 목돈도...

출처 : 뉴시스 2020.05.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6\\_0001014641&cID=13001&pID=13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6_0001014641&cID=13001&pID=13000))

# 직장인들의 생활자금 소진 가속화

# 힘겨운 '코로나 보릿고개'... 대기업·소상공인 은행으로 달려갔다



연후대도 신청을 드루즈 여행

### 같이 본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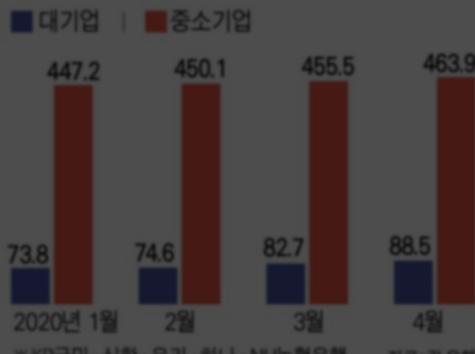
- 1. 정부가 코로나 보릿고개 대기업도 지원...
- 2. 기업이 무사한 원인으로 지적된 코로나...
- 3.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실적 전망...
- 4. 중소기업의 불거진 지역별 현상도, 그러나...
- 5.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 6. 중소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그러나...
- 7. 중소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그러나...
- 8. 중소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그러나...
- 9. 중소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그러나...
- 10. 중소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지난달에 은행 빚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본격화된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대출을 내사하도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일대일 은행으로 달려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이 같은 대출 수요는 최소 2분기까지 계속될 것만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정부 주도로 시중은행이 은행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특혜대출에 나서면서 대출 증가가 더욱 가팔라졌다. 은행들은 시중 금리 저리를 정부가 90%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1000원까지 연 1.5% 대출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한달 새 5조1천 9백억 늘었다.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41%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인 셈이다. '8대 중 1'로 평가받던 5월 증가액(조7천7백억)의 두 배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소액의 금액이 위축되면서 지난 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여파가 두 달이 넘도록 잔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 5대 은행 대출 잔액 변화(단위:조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자 대출을 내서라도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앞다퉀 은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이 같은 대출 수요는 최소 2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감염증 확산세가 여전한데다 유가 폭락에 따른 경기 침체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확보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출처 : 아시아경제 2020.05.0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0811154296618>)

개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대거 유입

# [코로나19] '경제 타격' 이제부턴데...은행 대출 벌써 '이상기류'

2020.05.07 09:36 | 수정 2020.05.06 17:36 | 방문자 749 | [Dailian.co.kr](https://www.dailian.co.kr)



4대은행 연체 대출, 1분기에만 2500억 늘어 2조7000억 돌파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연체 증가율 개인보다 두 배 이상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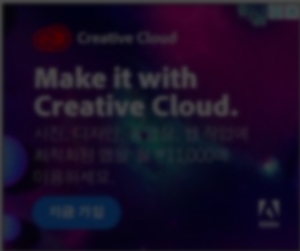
국내 4대 은행 연체 대출 잔액 추이. (2020.05.07) 방문자 749

신한 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발생한 연체 대출은 총 2조7471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5011억원)보다 9.8%(24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금액은 총 2조7471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5011억원)보다 9.8%(24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개인보다 기업 차주들이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초·대형 은행들의 개인대출 증가율은 1.82284%(182284억원)에서 5.8%(5804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 액수는 1조2414억원에서 1조4177억원으로 14.2%(1763억원)나 확대됐다. 개인대출 연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국민이 대출 연체가 일찍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신한은행이 대출 연체가 6302억원에서 7104억원으로 12.7%(1202억원) 급증하며 확대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역시 6980억원에서 7108억원으로, 국민은행은 6887억원에서 7107억원으로 각각 1.9%(1202억원)와 3.2%(2202억원) 늘며 연체 대출이 7000억원 대로 올라섰다. 하나은행이 대출 연체 잔액은 4642억원에서 5062억원으로 4.5%(2202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은행 대출의 전반적 악화는 코로나19에 따른 악재로 이어졌다. 해가 지는 밤엔 연·월 정기 할당이 끊어 잔존 금액이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연체율 저감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중심으로 기업 차주들은 현재 상황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지난 달 지급사망 기업중기상사자(2020)는 46으로 전년(46) 대비 200%나 뛰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가 끊어지던 2019년 12월(4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급사망에 대해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편중을 해소할 것으로, 기존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4개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금액은 총 2조7471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5011억원)보다 9.8%(24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

출처 : 데일리안 2020.05.07 (<https://www.dailian.co.kr/news/view/888147?sc=Naver>)

개인대출 연체 증가율

기업대출 연체 증가율

5.6%

14.2%

개인과 기업 모두  
연체 증가율 빠르게 증가

# "빛내서 주식 투자 급증"... '동학개미' 괜찮나

2020.05.06 09:30 / 1분 30초 05.06.20.27



...코스피 폭락 이후 한 달 반 만에 30% 넘게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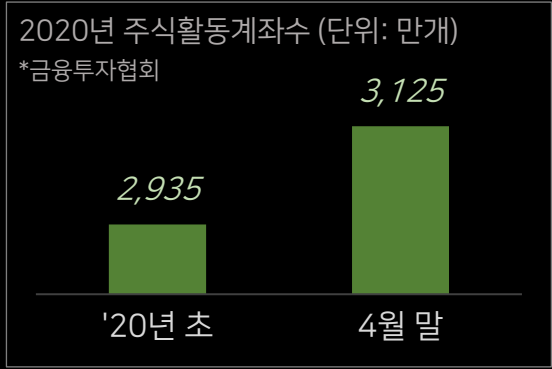
... 올해 새로 만든 개인투자자 주식계좌의 절반 이상은 2-30대...

문제는 빛까지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연 1.5% 금리의 (2금융권)대출을 내주다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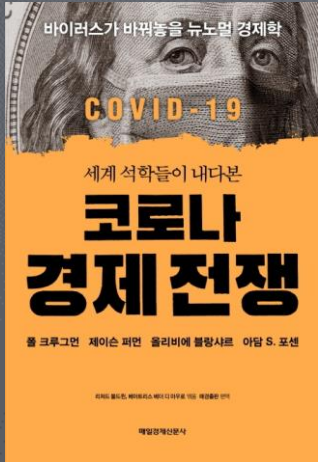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주식 투자 등 가수요 촉발...

출처 : MBC 2020.05.06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60798\\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60798_32524.html))



▶ **6.47% 증가**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

주식보다 위험이 큰 원유 관련 상품에도 몰려  
**급기야 소비자 경보 발령**



- 전세계 경제학자 26명의 코로나 영향 분석 모음집
- 매일경제신문사

“ 문제의 진원지는 경제적 붕괴다. 수입이 없는 가구는 주택담보용자와 소비자신용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다. ”

기업이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총수입이 감소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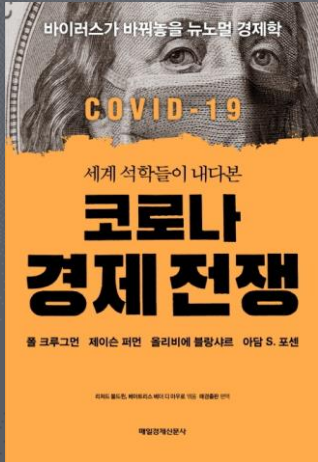
경제 혼란기 동안 기업은 가능하다면 신용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던 많은 기업의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기 변동기에 은행 대출의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은 경기순응성 (금융시스템이 실물 경기와 상화작용하는 현상)이다.

이럴테면 경기 침체기의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위험도가 큰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신속하게 줄인다. 이러한 대출 축소 가운데 일부는 대출 수요가 줄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बैं킹의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기관 간 갈등은 금융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토르스텐 벡 (Thorsten Beck)  
런던 카스 경영대학원, CEPR  
《코로나 시대의 금융 : 다음은 무엇인가》



- 전세계 경제학자 26명의 코로나 영향 분석 모음집
- 매일경제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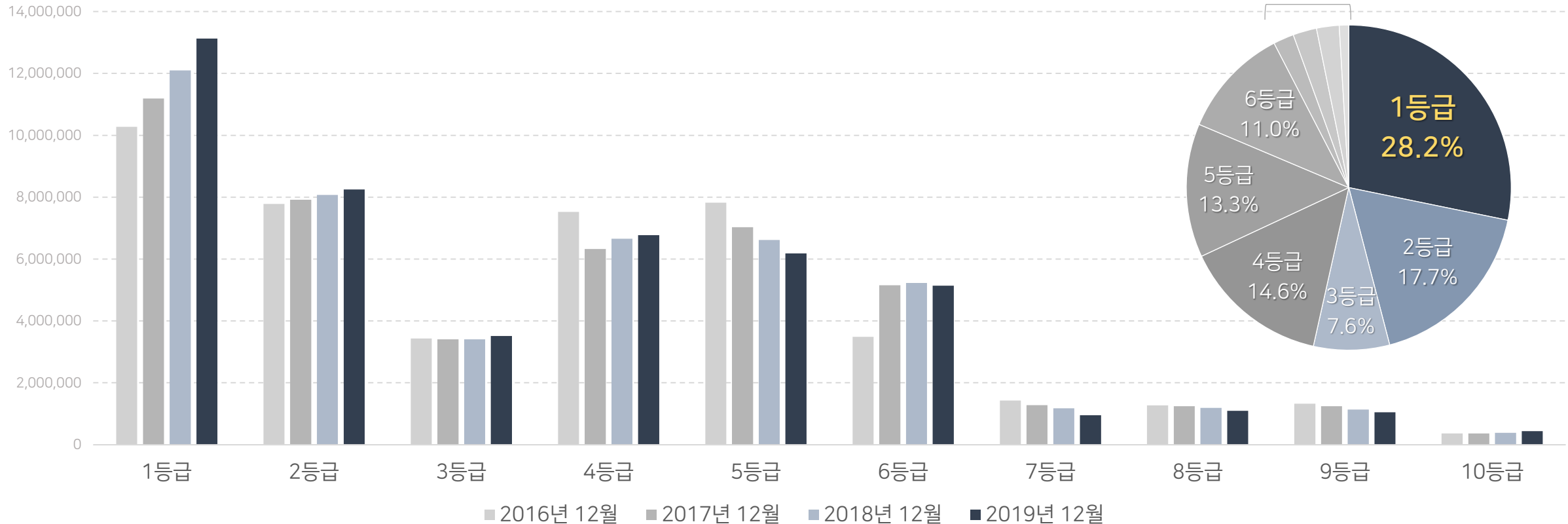
“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지 금융위기는 아니다. 정부의 재정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튼튼한 정부 재정도 무한할 수는 없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은행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 재정 건전성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회복력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다수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평가되었지만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루어졌을까? 금융계가 동요하고 있고, 시장은 이미 공황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매도를 통해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는 주가가 대폭락한 틈을 타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시는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 ”



찰스 위플로즈 (Charles Wyplosz)  
제네바대 국제경제대학원, CEPR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라》

# 국내의 신용등급별 인구 분포를 보면 1~5등급까지의 비중이 81.4%로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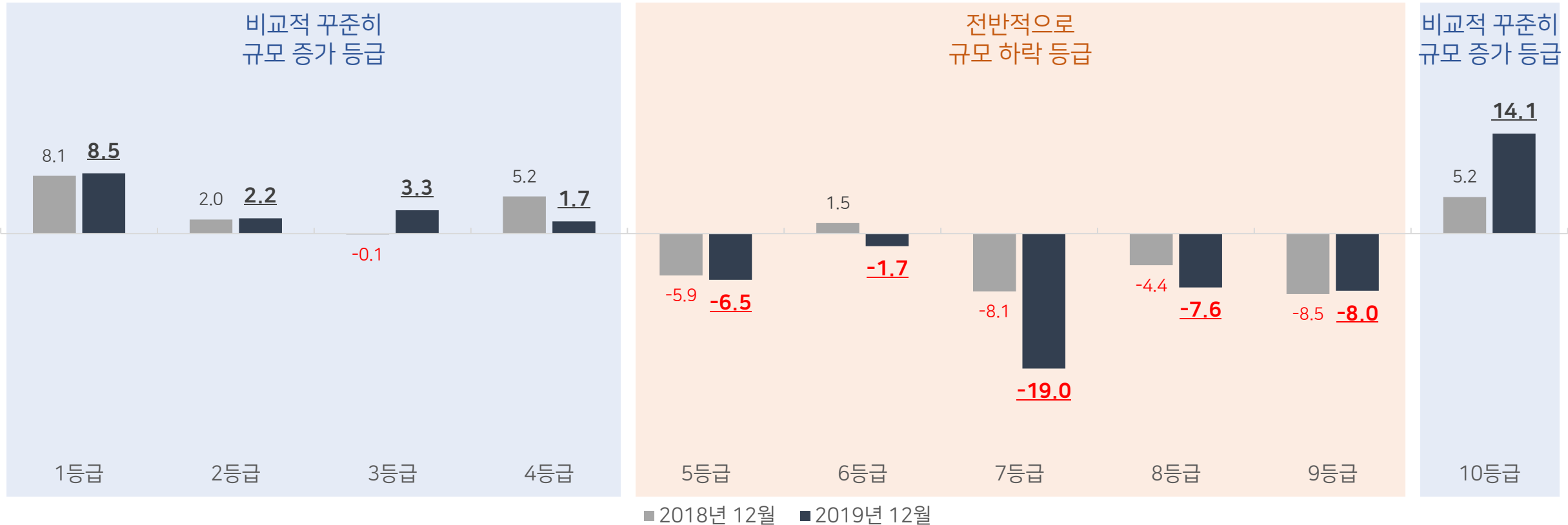
신용등급별 인구 분포  
증감 추이 (단위: 명)



\*Source : NICE평가정보(주) / (<https://www.credit.co.kr/ib20/mnu/BZWCACCCS13>)

# 하지만 연간 증감률을 기준으로 보면 1~4등급 & 10등급이 증가세

신용등급별 인구 분포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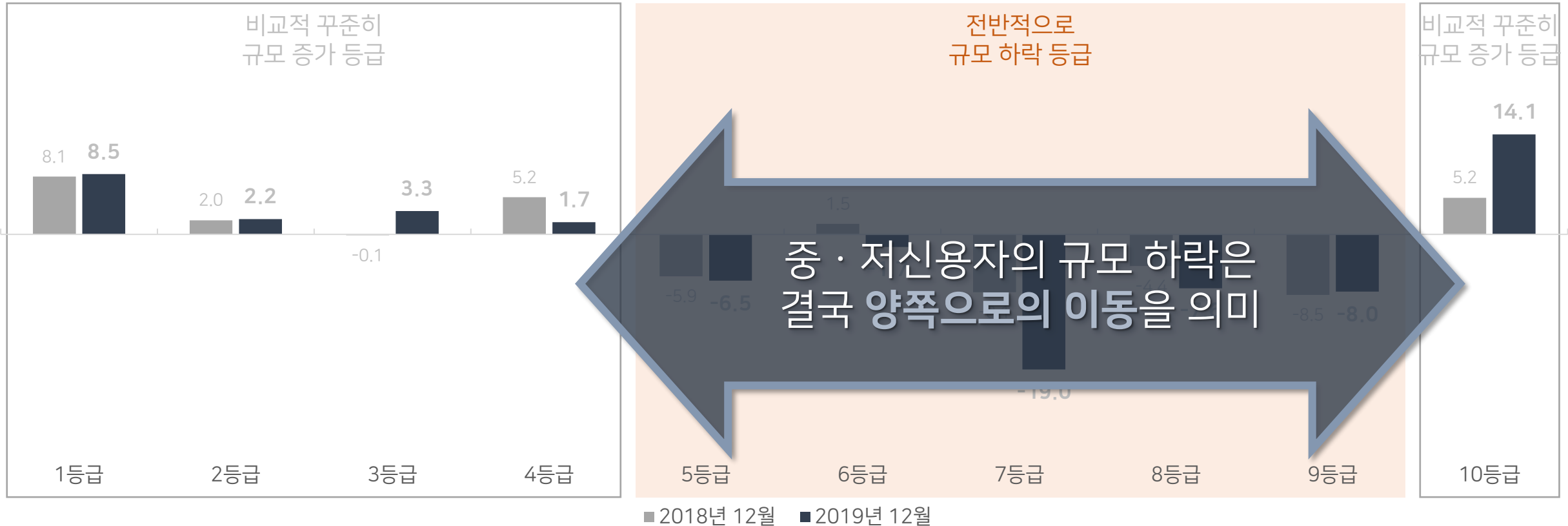


\*Source : NICE평가정보(주) / (<https://www.credit.co.kr/ib20/mnu/BZWCACCCS13>)



# 5~9등급 규모가 지속 감소한다는 것은 양극화 현상의 의미로도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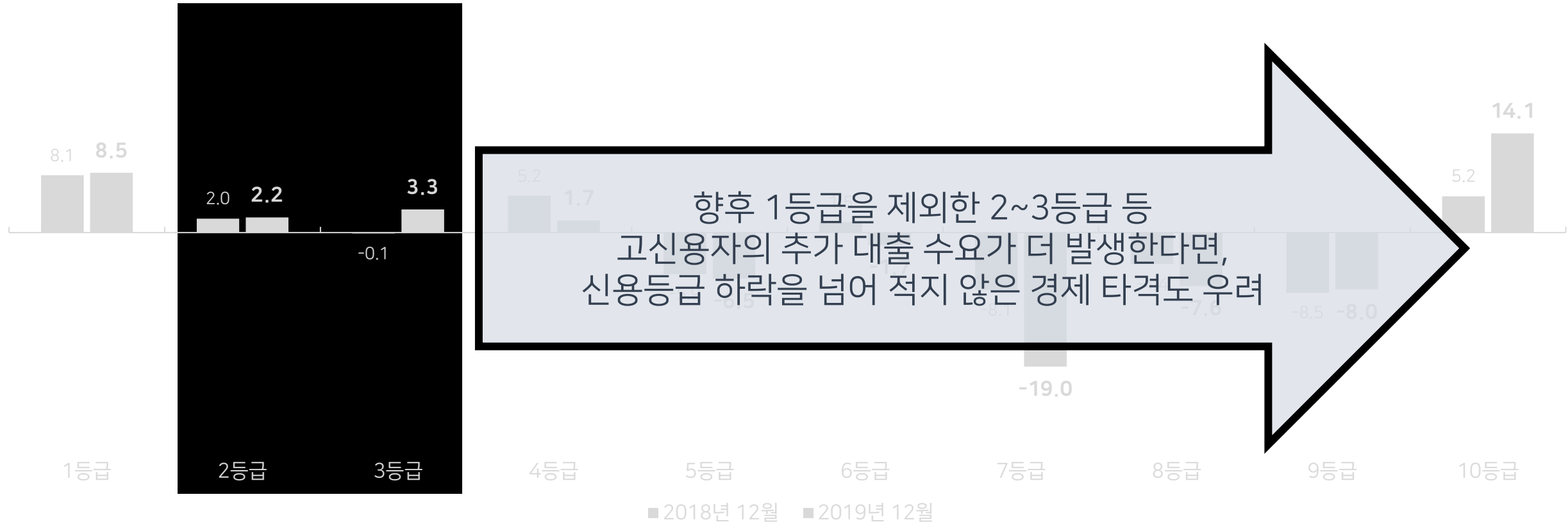
신용등급별 인구 분포 증감률 (단위: %)



\*Source : NICE평가정보(주) / (<https://www.credit.co.kr/ib20/mnu/BZWCACCCS13>)

이러한 환경에서 2~3등급 등 고신용자의 대출 증가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양극화** 초래 가능

신용등급별 인구 분포  
증감률 (단위 : %)



\*Source : NICE평가정보(주) / (<https://www.credit.co.kr/ib20/mnu/BZWCACCCS13>)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고·중신용등급자의 신용등급 하락폭이 가장 컸음

〈그림 3〉 고·중신용(1~6등급)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률<sup>1)</sup>



출처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2014.02

< SNS, Consumer Real Buzz >

“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 대출은 한 번 받기도 힘드네요,  
몇 달 전에 신청한 대출을 이번에 겨우 받았어요,  
사실 3주 전에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신용등급 2등급에 겨우 0000원 받기는 했는데..  
**우선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계속 안 좋게 유지되면 어찌될지 걱정이 심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코로나에 대한 많은 분석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많은 전망, 예측을 하려고 끊임없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데이터랩의 모든 구성원이 데이터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의 꽃은 결국 '예측'일 것이라는 편향(bias)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바로 내일을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또 한 번의 우려가 터졌지요.)

그럼에도 엠포스 데이터랩에서는 또 한 번의 전망,  
속단일지도 모를 예상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총 4회로 예정된 기획시리즈 중 마지막에 게시될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보다는, Post Corona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판단

이제까지와 달리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고민하여 얘기해 보려 합니다.

E n d   O f   D o c u m e n t

###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T 02. 6177. 1871 eMAIL [khbak@emforce.co.kr](mailto:khbak@emforce.co.kr)